

◆ 政府 施策 ◆

부품·소재 共用化 확산 誘導 — 通産部, 2천년까지 518개 資本財 표준화 —

정부는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부품·소재의 공용화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부품·소재의 공용화사업을 통해 자본재산업의 제조원가 절감, 개발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경쟁력향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2천년까지 125억원을 투입해 총 518건의 자본재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가전제품·건설기계부품 등 공용화 추진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규모 공용화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 전반에 공용화사업이 확산돼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품목 단체별로 ‘공용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난 6월 구성돼 운영중인 ‘자본재표준화기획단’과 통상산업부내 품목담당관이 공용화추진협의회의 공용화사업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공용화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용화단계를 규격설정단계, 공용화단계 및 상호구매단계 등 3단계로 구분, 규격설정단계에서는 ‘자본재표준화기획단’이 산업기술 기반사업으로 규격작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공용화단계에서는 규격화된 부품과 그 부위의 관련부품에 대한 설계비용을 공업발전기금으로 융자하는 한편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표준화규격표시품에 대한 정부관련기관의 우선구매, 검사·형식승인 면제, 규격표시명령제도의 도입 등 공용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호구매단계에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와 병행, 공용화부품과 공용화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본재에 대한 외화표시원화자금(외화대출)의 우선지원 및 우수품질마크 획득지원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통산부는 공용화사업을 동일업종 뿐만 아니라 이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재표준화기획단’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 공용화 추진이 가능한 CALS(Commerce at the Light Speed : 광속상거래)와의 연계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용화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층의 공용화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경쟁력확보에 대한 정부보호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체내, 업체간 및 국제간 공용화 추진 등 자구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나갈 계획이다.

통산부는 공용화를 추진할 경우 개발품목수의 축소와 이에따른 생산공정수 감소 등으로 규모에 따라 5~15%의 제조원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량다품종 품목의 경우도 양산효과로 약 3%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개발품목수의 축소에 따른 개발여력을 제품차별화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쟁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貿易의 날 有功者 포상요령 공고

- 수출 質的高度化에 가산점 -

정부는 올해 무역의 날 행사 유공자포상에서 수출의 양적확대보다는 신시장개척 수출, 對日수출, 수입대체 기술개발제품 수출 등 질적고도화에 기여한 부분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종합무역상사에 대해서는 수출실적과 함께 중소기업제품 수출대행 등을 종합해 별도로 평가하고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 해외근무경력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오는 11월 30일 개최되는 무역의 날 행사에서 최초로 수출 1천억달러를 상회하는 올해 무역의 날을 맞이해 우리나라 수출확대와 질적고도화에 중점을 뒀 포상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의 날 포상요령을 공고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올해 무역의 날 포상은 종전과 같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의 탑과 수출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 기타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수출의 탑은 지난해와 같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100만불과 500만불 등 2개의 백만불탑,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적용되는 2천만불과 5천만불등 천만불대 탑 2종, 그리고 1억불, 5억불, 10억불, 50억불, 100억불로 구분되는 억불대탑 5종 등 모두 9종의 수출의 탑이 수여된다.

신청자격요건은 당해년도(94.7.1~95.6.30) 처음으로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로 수출증가율이 당해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업체여야 한다.

다만 수출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컬수출인 경우 질적계상이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공급업체나 수출업체 중 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하고 수탁 가공수출은 외화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정부포상은 대기업 1천만달러 이상, 중소기업 500만달러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과 기타 유공자에게 수여하되 수출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고도화에 중점을 뒀 평가시 가산점을 줘 우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경우 신시장개척, 對日수출, 수입대체 등 기술개발제품 수출 등에, 종업원은 생산직근로자, 여성근로자, 해외근무 경력자 등을 우대해 평가하되 노사분규 빈발업체, 불공정 무역행위 등을 한 업체는 평가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포상신청서는 무역협회 본부 및 지부에서 8월1일부터 배포하고 8월7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95년도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정 ❖

통상산업부는 유망선진기술기업 육성방안(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46호)에 의거 '95년도 유망선진기술기업을 지정, 공고했다. 이번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110호, '95. 8. 4)된 '95년도 유망선진기술기업중 전기분야 업체는 다음과 같다.

■ '95 유망선진 기술기업 명단(전기분야)

업 체 명	대표자	발 굴 기 관	업 체 명	대표자	발 굴 기 관
대양전기공업(주)	서정승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삼화진흥(주)	김실희	생산기술연구원
재우정밀(주)	이영재	·	(주)재승기업	김인영	·
삼창휴먼라이프	성종제	·	동우실업(주)	장숙동	·
한일영사기제작소	김성수	·	선일산업(주)	이준성	·

업 체 명	대표자	발 굴 기 관	업 체 명	대표자	발 굴 기 관
효성전기공업(주)	최인효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배전산업(주)	유문길	생산기술연구원
동양산전	김동인	"	동명기전공업(주)	강근희	"
(주)세아물산	유세훈	"	(주)유일금속	김길현	"
(주)파워테크	신동희	"	(주)효광	김홍용	"
동도전기공업(주)	문동완	"	선광전기	김상철	"
제룡산업(주)	박종태	"	금산산업사	한상리	"
(주)태인	이인정	"	(주)영엔지니어링	홍영기	"
(주)삼신정공	류시영	"	미미전자(주)	원정희	"
(주)선광	이원규	"	태진중전기(주)	최택구	"
화진전광	곽한궁	"	파이오니아메탈(주)	석창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태영	고광선	"	한국조명공업(주)	박금옥	"

수출업체 外國規格획득 지원

— 工振廳, 품목별 支援班서 기술지도 —

공진청은 수출업체의 외국규격 획득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외국인증기관과 국내 공인시험기관과의 상호인정을 확대해 외국규격 획득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꾀하는 한편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품질·규격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품목별 관련기관 지원전담반을 통한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천리안에 '공진방(무역기술정보)'을 개설해 외국 규격의 내용, 획득절차 및 방법, 규격획득을 위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이 수출업체의 외국규격 획득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외국이 수출업체에 대해 자국의 기술규정에 의한 규격획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외국품질인증 제도가 비관세 기술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국내 수출업체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업체들은 외국규격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규격획득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부족 등으로 규격획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一流化가능상품 실태조사

— 工振廳, 10월까지...60개업체 대상 —

공업진흥청은 WTO체제 하에서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품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일류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반도체D램 등 15개 품목을 지정한데 이어 추가적인 발걸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세계일류화 가능상품 및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계일류화상품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 품목당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기계분야와 생활용품분야, 각각 5개 품목, 전기분야, 섬유분야 각각 4개 품목, 화학분야 3개 품목 등 총 21개 품목에 60개 업체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수출실적 및 수출전망, 수출가격 추이, 해외상품등록 현황, 국제경쟁력 분석, 수출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수출제품의 시험분석 자료 등을 활용해 일류화상품의 품질기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업진흥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과 소재·부품 등이 일류화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통상산업부에 추천하는 한편 기술 및 품질경영 상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도계획에 반영해 세계일류화업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반도체D램 등 15개 품목은 55개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끝내고 이달중 처음으로 세계일류화업체가 지정될 예정이다.

마음마다 안전의식 손길마다 안전조치